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공급 확대

전주시, 11월 초 12호 규모 신규 입주자 공개 모집

전주시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만원주택인 ‘청춘★별채’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11월 중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청춘★별채의 신규 입주자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상반기 모집 이후 이어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속적인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10월 한 달간 청년매입입대주택의 퇴실 세대를 보수·정비에 재공급함으로써 입주 회전율과 공급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 입주자 모집 당시 52.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이번 모집 역시 높은 참여가 예상되며 청년 주거 수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신규 모집 규모는 12호로 11월 초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을 통해 입주 모집 공고할 예정이며, 자격과 소득·자산 검증을 거쳐 12월 중 입주자를 확정한다.

이와 관련 ‘청춘★별채’는 기존 시세의 40% 수준인 청년 매입 임대주

택의 임대료를 ‘월 1만 원’이라는 가격적인 조건으로 낮은 전주시 대표 청년정책으로, 입주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나 무주택 미혼 청년 중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 중 결혼한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연장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청춘★별채는 시가 직접 공급·운영하는 만큼 전월세 사기 등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대학교 주변 등 청년 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또 이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대별로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전제품이 설치돼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66호의 청춘★별채 입주 완료됐으며, 시는 오는 2028년까지 공급 규모를 총 210호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시는 앞으로 늘려갈 청춘★별채에 대해서는 신속 주택 위주로 공급해 청



전주시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만원주택인 ‘청춘★별채’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주거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거 선호 면적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도 공급을 목표로 현재 평화동에 신축매입청년주택 1개동 24호를 건축하는 등 추가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입주 청년들의 공동체 형성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는 입주자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입주자 간 소통과 정보 공유

도 활성화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는 오프라인 자율 참여 커뮤니티로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활동 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며 미래세대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주형 청년특화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청년 정착의 마중물이자 활력 넘치는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청소년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

전주시, 6개 청소년센터와 특색있는 문화 행사 기획·운영

전주시가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전주시역 6개 청소년센터(술내, 완산, 전주, 덕진, 효자, 인후)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청소년 동아리 등 각 청소년센터별로 자체 기획한 문화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 상반기 완산

청소년센터의 ‘행복한 나를 찾는 마음 여행’(4~12월)을 통해 자기 이해와 관계 능력 향상시켜 왔다.

또한 효자청소년센터의 ‘청춘 락 페스티벌’(5~9월)을 통해 청소년 밴드 경연과 음악 교류의 장을 제공했다.

이밖에도 지난 5월 10일에는 청소년 시설 연합으로 ‘전주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가 펼쳐지기도 했다.

이어 시는 올 하반기에는 덕진청소년



년센터의 ‘청소년 힐링 작은음악회’(8월 30일)를 통해 청소년들이 끼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동아리 경연을 진행했고, 지난달 13일에는 전주청소년센터 주관으로 ‘제1회 전주시장배 전주 e스포트 마스터즈’가 펼쳐지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체력과 협동심을 겨루는 전주청소년센터의 ‘노리밋 챌린지: 청소년체전’(10월 25일)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술내청소년센터의 ‘술내 토크 페스티벌’(12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8일에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센터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도 개최한다.

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청소년 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AI시대 맞춤형 취업전략 공유

전주시가 구직자들에게 급변하는 채용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시대에 걸맞은 취업전략을 공유했다.

시는 21일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구직전략기술 특강’을 열고,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연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활용법을 안내했다.

이번 특강은 채용 트렌드 변화에 따라 구직자들이 효율적으로 역량을 표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특강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등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AI 도구를 활용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과정을 통해 지식·기술·태도 중심의 자기소개서를 실질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또한 참석자들은 △‘교용24’ 플랫폼의 인증 절차 △직종 탐색 △지원서

작성 △역량 진단 등 구직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보며, 개인의 강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전주시일자리지원센터와 전북중장년내일센터 등 주요 일자리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과 청년·여성·중장년·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함께 소개돼 참여자들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권희성 기자

전라감영에 피어난 한복의 빛

전주시, ‘한복의 날’ 기념행사 성료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2025 한복문화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한복의 날’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전주시는 21일 전라감영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내민, 외국인 참가자, 일반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복문화주간 개막식’이자 ‘한복의 날’ 기념행사인 ‘비단夜(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한복을 입고 전통놀이와 체험 부스를 즐기며 축제 분위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 한복 대여가 제공

돼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이날 전라감영 일원은 고운 한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으며, 선화당과 어우러진 한복등(燈) 세레모니는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한복의 전통과 멋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이번 ‘한복의 날’ 행사를 통해 많은 분이 한복문화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28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대에서 이어질 다채로운 한복문화주간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탄소중립 시민강사 33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 탄소중립 시민강사 역량 강화 나서

전주시는 탄소중립 시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시민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탄소중립 시민강사 33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인식 전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첫날 교육에서는 ‘모두

를 위한 환경교육’을 받고,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보완점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둘째 날 교육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원리’와 ‘시민햇빛발전소 이해’를 주제로 한 심화 강의가 진행됐다.

시는 이번 보수교육에 이어 시민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교안연구회를 운영하며, 기존 교안 개정과 신규 교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 중앙동 지사협, 행복동네만들기 건강드림 중식봉사

전주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미숙)는 21일 중앙동주민센터에서 관내 어르신 200여명을 초청해 ‘행복동네만들기 건강드림 중식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완산구 짜장면 봉사대

의 재능기부와 중앙동 새마을 부녀회의 봉사활동 등 단체들의 협업으로 진행하였으며 봉사자들이 직접 재료를 준비해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한끼를 대접하며 안부를 살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권희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회장 임근홍

도전과 개척의 역사!
'전문건설인'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묵묵히 건설현장을 지키며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그 역할을 다해온 전문건설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회원의 권익신장과 업역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13대 제임원·지역위원장

회 장	임근홍 (유)유림건설	유홍중 (주)누리토건	김만성 (유)보성건설
부 회 장	김진호 (유)대안건설	박병규 (주)계림건설	
감 사	최영재 (유)성주건설	박찬용 (유)성지도건	강훈희 (유)대가건설
운영위원	신현철 (유)서영건설	방한웅 (유)도암건설	박이수 (유)베스트이엔씨
	박병태 (유)금나라건설	임완택 (유)석금	박범기 (주)토림
	김종욱 (유)대광건설산업	김남한 (주)우성인테리어	이우상 (유)금강건설
	김재주 (창남건설 (주))		
지역위원장	고창 박충귀 (유)기능건설	군산 박상배 (주)고려건설	김제 이선한 (유)금정건설
	남원 김재주 (창남건설 (주))	부안 강훈희 (주)대가건설	순창 오춘두 (유)한성토건
	완주 최한영 (유)삼라건설	익산 장연갑 (유)청우건설	장수 이대운 (유)계남건설
	정읍 신현철 (유)서영건설	진안 강준희 (성안건설 (주))	